

芭蕉의 漂泊에 나타난 杜甫의 影響

朴 馥 遠*

目 次

- I. 들어가는 말
- II. 先行研究
- III. 芭蕉의 漂泊과 歌枕
 - 1. 漂泊과 自然
 - 1) 日本 傳統詩歌와 自然
 - 2) 芭蕉의 漂泊과 自然
 - 2. 漂泊과 歌枕
 - 1) 日本 傳統詩歌와 歌枕
 - 2) 芭蕉의 漂泊과 歌枕
- IV. 芭蕉의 漂泊에 나타난 杜甫의 影響
 - 1. 漂泊과 環境的 要因
 - 2. 自然을 향한 接近方式으로서의 漂泊
 - 3. 漂泊에 대한 態度
- 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늘 한곳에 定住하지 않고 떠돌아다닌다는 意味를 지닌 漂泊은 많은 詩人이나 哲學者들이 修行의 한 方面으로 삼았다. 芭蕉나 杜甫는 全生涯를 漂泊的인 삶으로 一貫하였으며, 漂泊을 하는 동안 大自然을 觀照하게 되고 自然과 融合하면서, 大自然 속의 歌枕·古歌·故事와 緣故가 있는 땅을 直接 體驗하여 漂泊者의 詩心을 吟味하고, 詩歌의 傳統을 더듬는 時間的·歷史的 漂泊으로 一貫하였다.

杜甫는 755年 安祿山の 亂이 일어나면서부터 770年 洞庭湖 배안에서 숨을 거두기까지 漂泊을 하였으며, 芭蕉 역시 1684年 『野ざらし紀行』에서부터 1694年 大阪의 南御堂에서 숨을 거두기까지 10年間 漂泊을 繼續하였다. 漂泊으로 인한 困難함 生活의 窮乏함 孤獨, 寂寞 등에서 芭蕉와 杜甫는 닮았으며, 漂泊으로 生涯의 後半을 보내고 漂泊 도중에 他郷에서 最後를 맞이하는 점이 같다. 게다가 漂泊은 두 詩人의 詩歌를 向上시키고 수많은 秀歌을 誕生시켰다는 점 역시 共通點이다. 이런 觀點에서 볼 때, 芭蕉와 杜甫의

* 晋州國際大學校 觀光日語學科 副教授 日本近世文學

詩歌는 漂泊과 遊離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密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詩人의 詩歌 속에 溶解되어 있는 漂泊 思想을 理解하지 않고서는, 두 詩人의 思想의 本質을 發見하기 困難하다고 본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芭蕉와 杜甫에 있어 이렇게 큰 意味가 內包되어 있는 漂泊에 대하여, 먼저 芭蕉研究에 대한 韓日間의 先行研究를 檢討한 후에, 芭蕉의 漂泊과 歌枕을 日本傳統詩歌와 對比시켜 分析하고, 이를 바탕으로 芭蕉와 杜甫의 漂泊에서의 相關關係를 環境的 要因, 漂泊에 대한 接近方式, 漂泊에 대한 態度 등의 順으로 考察하려고 한다.

II. 先行研究

韓國人에 의한 芭蕉 研究는 상당히 進歩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公認롭게도 芭蕉가 가장 큰 影響을 받은 杜甫와의 關聯性에 대해서는 國內 芭蕉 研究者에 의한 研究는 거의 없는 實情이다. 2000年 1月 辛恩卿이 發表한 「杜甫·尹善道·松尾芭蕉에 있어서의 ‘隱’의 처세에 관한 비교연구」¹⁾와 2000年 8月 辛恩卿이 發表한 「尹善道와 바쇼오(芭蕉)에 끼친 杜甫의 影響에 관한 연구」²⁾가 芭蕉와 杜甫의 關聯性을 研究한 論文의 全部이다. 그리고 이들 論文의 內容에 있어서도 「杜甫·尹善道·松尾芭蕉에 있어서의 ‘隱’의 처세에 관한 비교연구」는 “處世의 한 類型으로서의 ‘隱’에 대한 것”으로 杜甫의 處世觀을 芭蕉와 尹善道의 삶을 통해 比較하는데 머물렀다. 그리고 「尹善道와 바쇼오(芭蕉)에 끼친 杜甫의 影響에 관한 연구」에서는 “杜甫의 自然觀”을 中心하여 “尹善道와 芭蕉의 自然觀에 끼친 杜甫의 影響”에 대한 斷片的인 研究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는 다르다. 仁枝忠의 『芭蕉に影響した漢詩文』은 「蕉風」前期에 있어서 漢詩文 攝取와, 芭蕉의 俳論과 漢詩文, 芭蕉의 引用書 등을 說明하고, 杜詩와 芭蕉와의 關係에 관해서 出典을 提示하였다. 또 廣田二郎의 『芭蕉と杜甫 - 影響の展開と體系』는 時期別로 杜詩와 芭蕉와의 關係를 具體적으로 整理하고, 芭蕉의 發句·連句·紀行·俳文의 각 장르에 걸쳐 杜詩와의 關係를 考察하였다. 芭蕉의 俳句와 杜詩의 語句 技法과의 關係를 指摘하였을 뿐만 아니라, 芭蕉와 杜甫는 精神的인 關係를 가지고 있다고도 主張하였다. 太田靑丘의 『芭蕉と杜甫』는 芭蕉의 漢詩文 素養, 芭蕉 散文에 미친 杜甫의 影響, 杜甫와 芭蕉의 日中文學史上的 意義 등에 관해 考察하였다. 赤羽學는 『芭蕉俳諧の精神』에서, 芭蕉는 杜詩를 그대로 引用하고 過去의 事實과 現在의 事情을 直接 連結하여 杜詩에 表現된 世界를 하나의 風景으로서 現實 속에서 찾아내려고 하였다. 이

1) 辛恩卿, 2000. 1, 「杜甫·尹善道·松尾芭蕉에 있어서의 ‘隱’의 처세에 관한 비교연구」, 韓國言語文學會.

2) 辛恩卿, 2000. 8, 「尹善道와 바쇼오(芭蕉)에 끼친 杜甫의 影響에 관한 연구」, 韓國比較文學會.

것은 古典을 「句ひ」·「俳」에 의해 受用하는 方法이고, 古典과 現實의 懸隔한 距離를 넘어 兩者의 融化를 試圖한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리고 『續芭蕉俳諧의 精神』에서는 杜甫의 「侘び」精神이 芭蕉에게 전해졌다고 主張하고 있다. 吉川幸次郎의 『中國文明と日本』에서는 芭蕉의 象徴적인 表現手法, 風景을 虛構하는 表現手法 등을 杜甫로부터 받아들인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리고 黒川洋一의 『杜甫의 研究』에서 芭蕉는 杜甫의 詩心에 溶解되어, 그의 詩情을 豊富하게 하였다고 主張하고 있다. 小西甚一은 『日本文藝史 IV』에서 芭蕉는 唐宋詩에 있어서와 같이 作者 自身이 俳句의 話主가 되고, 人生의 哀歡을 一人稱적으로 表現하려고 試圖하였다고 主張하고 있다. 佐藤圓은 『芭蕉と禪』에서 芭蕉의 杜詩 引用例를 年代順으로 提示하였다. 曹元春은 『杜甫と芭蕉』에서 表現技法에서 볼 수 있는 杜甫와 芭蕉의 交流와 人間觀과 自然觀, 思想의 源流에 대해 指摘하였다.

이와 같이 日本에서의 芭蕉와 杜甫 關係研究에서는 出典論에 의한 研究는 상당히 進척되어 있다. 그러나 개개의 杜詩와 俳句와의 內容적인 關聯性을 實證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고, 그 表現的·精神的·思想的인 關係를 糾明하는 研究는 아직 미흡한 水準에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들 出典論에 의한 先行研究를 바탕으로 하여 한걸음 나아가서 芭蕉와 杜甫의 漂泊을 통해 芭蕉의 俳句가 어떻게 發展하였는가 하는 研究의 必要性이 提起되고 있다.

Ⅲ. 芭蕉의 自然과 漂泊

芭蕉는 『奥の細道』序文에서 「日々旅にして旅を栖とす。古人も多く旅に死せるあり。」³⁾라 하면서, 芭蕉 自身도 漂泊 古人들의 삶을 본받아 一生을 漂泊으로 始作하여 漂泊으로 끝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또한 그가 한 漂泊은 단지 物見遊山의 한가로운 旅行이 아니고, 스스로 뼈를 깎는 苦痛과 죽음을 覺悟한 漂泊으로서, 漂泊마다 俳境을 깊이 있게 하고 빛을 더하여 俳句의 成果가 되어 나타났다.

1. 漂泊과 自然

日本 傳統詩歌의 大部分은 季節을 노래하고 있으며, 連歌나 俳諧의 發句 등에는 반드시 季節을 表示해야만 하는 등, 季節은 詩歌의 成立 自體의 重要한 要素가 되고 있다. 그리고 季節의 變化와 함께 地理的 條件이나 氣象現象, 季節에 따라 舉行되는 祝祭나 年中

3) 井本農一(1999) 『松尾芭蕉』, 小學館 p.75.

毎日毎일이 旅行이고 旅行이 自身의 風流인줄을 아는 古人도 旅行에 죽을 수 있다.

行事 等도 傳統詩歌에 많은 影響을 주었다. 예를 들면 傳說的인 背景을 갖는 場所나 名勝地인 「歌枕」⁴⁾가 詩歌의 重要對象이 되고, 또한 日本列島 特有的인 구름, 안개, 비, 눈, 바람 등의 氣象條件이 作品의 情緒를 대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季節의 變化, 風土, 氣象, 風物 등은 넓은 意味에서 自然이라는 用語 속에 包含될 수 있다.

1) 日本 傳統詩歌와 自然

傳統詩歌의 發生이 神과 神에게 祈願하는 人間 사이에 形成된 것이라는 事實에 根據해서 생각할 때, 봄에는 一年의 收穫의 増大를 祈願하고, 여름에는 傳染病 등 나쁜 厄運을 물리치고, 가을에는 收穫에 感謝하는 農耕民族의 生活 必然性에서, 봄·여름·가을의 세 季節에 限定되어, 口承의 歌舞는 山林이나 山岳과 같이 平素에 人間이 가까이 하기 어려운 神聖視되는 곳에서 開催되었다.

「記紀歌謠」에서는 自然環境이나 季節 等の 背景을 갖고 있으며, 高天原系와 出雲系의 神話라는 地域의인 要素까지 加味되어있고, 神話와 傳說的의 種類에는 海幸, 山幸, 浦島 등의 海洋의인 것도 있다. 그러나 自然을 노래한 部分이 적고 戰鬥·狩獵·戀愛·祭祀·酒宴·哀傷 等 古代人들의 生活 全般에 관한 것들이 많으며, 밝고 素朴한 歌風 속에 古代人들의 野性的인 情熱을 느낄 수 있다.

日本傳統詩歌에 있어 季節과 地域을 確實히 區分하게 된 것은 8世紀頃의 『万葉集』부터이다. 이 時期의 詩歌에 나타난 自然은 神話的인 自然觀을 繼承하면서 佛教思想과 老莊思想 등의 새로운 外來思潮의 加勢로 自然觀도 한층 革新的인 모습으로 變貌하였다.

『万葉集』 卷 第8~10에 春雜歌(相聞), 夏雜歌(相聞), 秋雜歌(相聞), 冬雜歌(相聞)로 和歌를 四季節로 意識的으로 分類하였으며, 卷 第14 東歌에서는 都市와 農村을 區別하고 있다. 그러나 『万葉集』의 四季節 觀念은 雜歌 相聞와 結合되어 自然을 率直하게 읊은 것이고, 詩歌에 있어서 自然의 位置나 意味에 관한 吟味의 認識論的인 自覺은 없었다. 따라서 『万葉集』에 登場하는 自然은 經驗的이고, 常識的이며, 皮相的인 것에 不過하다고 할 수 있다.

9世紀의 『古今和歌集』에 있어서는 自然의 位置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古今和歌集』는, 全 20卷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卷1에서 卷6까지가 春歌上·下, 夏歌上·下, 秋歌上·下, 冬歌 等 季節別로 나누어져 있고, 全體의 歌數 1,111首 中 342首가 季節과 關聯이 있다. 이를 다시 季節別로 細分해 보면 春歌가 上·下 134首, 夏歌가 34首, 秋歌가 上·下 145首, 冬歌가 29首이다.⁵⁾

4) 歌枕이란 和歌에 引証된 地名을 말한다. 大和朝廷 이후 친금감을 주워왔던 大和·山城 등의 地名외에, 특히 崇敬받던 神仏과 연관이 있는 場所, 歷史的인 事件이 있었던 場所, 語呂(말의 가락)에 의해 連想되는 場所 등이 있다.

5) 奥村恆哉(1980) 『古今和歌集』, 新潮社, pp.27~131.

『新古今和歌集』에 이르러서는 歌風이나 技法에 있어서 「織細·幽玄·有心」 등으로 노래하여 和歌가 志向해야 할 理念 등이 『古今和歌集』와는 달리 약간은 洗練되었지만, 和歌가 自然을 노래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新古今和歌集』에서는 自然이 歌人の 心情 基底에 당연한 것으로 認識되어 自然이 確實한 表現對象이 된다. 여기서 自然은 歌人の 審美的 對象이 되어 景物은 制限되었고, 또 이러한 自然은 詩歌의 對象이 되어 그 自体의 存在性을 잃고 歌人の 主情 속에서 變形이 되어 버리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四季節의 意識은 『万葉集』와 『古今和歌集』 이래 『勅撰和歌集』을 비롯해 「私撰集」, 「私家集」 등의 和歌에서 볼 수 있으나 連歌, 俳諧에 이르러서는 季題, 季語로까지 發展하여 후에는 日本의 傳統詩歌를 지탱해주는 不可缺한 要素가 되었다. 또 平安時代의 和歌에서 發達한 季節의 觀念은 『源氏物語』와 같은 散文에도 影響을 미쳐 書名에도 四季節의 草木名稱이 붙어 春夏秋冬 季節의 背景이 각 권에 걸쳐 人物의 活動에 情趣를 더해 주고 있다.⁶⁾

또 『枕草子』의 序文에 「春はあけぼの。(中略)夏は夜。(中略)秋は夕暮。(中略)冬はつとめて」⁷⁾ 등의 四季節의 情趣的 風景을 書頭로 쓰고, 2段에서는 「ころは、正月、三月、四五月、七八月、九十一月、十二月。すべてをりにつけつつ、一年ながらをかし」⁸⁾ 라고 季節的인 感상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봄철의 새벽녘이라든가 가을이 저물 무렵과 같이 『枕草子』의 作家가 느꼈던 自然의 아름다움은 그 以後에도 和歌 속에 스며들어 四季節의 典型的인 美가 되었다. 『徒然草』에서도 「折節の移り變るこそ」⁹⁾ 에서 四季節의 變해가는 모습을 感歎하고, 「家にありたき木は」¹⁰⁾ 에서도 自然의 樹木花草 등에 對한 생각을 記録하고 있다.

近世의 貞門·談林俳諧에서도 季節과 無關한 것이 아니고, 季節의 心情을 表現하는 言語의 驅使만이 달랐다. 芭蕉는 季節이 갖고 있는 自然의 情景 속에 파고 들어가 그 本質을 알아내어 그것을 純粹古雅하게 表現하였다.

以上の 分類에서 보면, 日本의 詩歌 大部分이 季節과 自然現象을 노래한 것이고, 自然을 背景으로 하여 感情을 比喩하여 表現하고 있다. 夏歌나 冬歌에 비해 春歌·秋歌가 많은 理由는 봄·가을이 詩的 興趣를 많이 誘發한다는 뜻으로, 詩歌感興의 源泉이 自然의 推移에 影響을 받는다는 것을 暗示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與謝野晶子(1955) 『源氏物語 上·下』, 河出書房.
 7) 松尾聰 外 2人(1983) 『枕草子』, 小学館, p.63.
 봄철의 새벽녘, 여름은 밤, 가을 저녁 무렵, 겨울철의 이른 아침
 8) 위의 책, p.64.
 때는 정월, 3월, 4,5월, 7,8,9월, 11,12월까지 모두가 하나같이 정겹다.
 9) 松尾聰(1978) 『徒然草全釋』, 清水書院, p.50.
 때에 따라 변해가는 것이아말로.../19단
 10) 위의 책, p.267.
 집에 심어두고 싶은 나무에는...139 단

2) 芭蕉의 漂泊과 自然

芭蕉에 있어서 自然이란 단순히 審美的 對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自然 그 자체가 바로 理法的 秩序이자 宇宙的 造化였던 것이다. 審美的 對象이란 單純한 美觀을 주는 外形의 自然을 말하며, 詩歌의 對象으로 花鳥風月을 經驗할 수 있는 物的 存在를 말한다. 이는 日本 傳統詩歌에서부터 볼 수 있는 自然觀으로, 自然이 아름답다는 것은 奇岩怪石이나 万頃蒼波 또는 落花明月이라는 現象的 事實에서 오는 것이다. 芭蕉도 처음에는 自然을 審美的 對象으로 俳句의 素材로 삼았었는데, 이것은 芭蕉의 出發이 季節·花鳥風月 등을 前提로 하는 俳諧人이었던 까닭이다.

芭蕉 俳句의 素材는 自然이 中心이며, 漂泊의 窮極的인 對象도 自然이다 따라서 芭蕉 俳句의 大部分이 自然과 關聯되어 있다. 이러한 自然과의 密接한 關聯性은 季節感을 나타내는 「季語」¹¹⁾가 俳句의 重要な 要素가 되었다. 季節에 따라 바뀌는 特性있는 自然의 神秘, 山河·水陸의 아름다운 景觀과 같은 自然現象은 芭蕉에게서도 直接 審美的 對象으로, 혹은 歌人の 人間事의 感動을 表現하는 對象으로 다가와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芭蕉의 人生과 芸術에 있어서의 自然은 우선 一次的으로는 美感의 所在로서의 意味를 갖는다. 芭蕉가 名所·旧蹟을 찾아, 半平生을 漂泊으로 보낸 事實이며, 芭蕉의 俳句 中에서도 歌枕에 關係가 있는 句가 많고, 대부분의 俳句가 花鳥風月, 또는 自然의 景觀을 吟詠했거나 이를 빌려 心境을 表現했던 것을 勘案하면 芭蕉가 얼마나 自然에서 人生과 俳諧의 素材를 얻었는가를 理解할 수 있다. 芭蕉의 漂泊이 蕉風을 普及시킨다는 實用的 目的도 있었지만, 漂泊의 危險을 무릅쓰고 漂泊의 길로 誘惑한 것은 景觀으로서의 自然 그 自体에 접하기 위한 것으로, 『奥の細道』의 다음 地文들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古人も多く旅に死せるあり。予もいつれの年よりか片雲の風にさそはれて、漂泊の思ひやまず。…そぞろ神の物につきて心を狂はせ、道祖神の招きにあひて取るもの手につかず。…松島の月先ず心にかかりて¹²⁾

吳天に白髮の恨みを重ねといへども。耳に触れていまだ目に見ぬ境、若し生きて歸らばと¹³⁾

11) 季語는 俳句에서 季節을 나타내는 말로, 俳句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어 민들레는 봄의 季語 무지개는 여름의 季語이다. 일본인은 계절감을 중요시하고 季語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 앞의 책, 『松尾芭蕉』, p.75.

古人도 旅中에 죽은 자가 많다. 나도 어느 해부터인가 조각구름이 바람에 끌리듯 放浪의 생각이 들어..... 귀신에 홀려 마음이 불안하고 行旅神의 부름을 받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松島の 달이 먼 저 마음에 떠 올라와...

13) 앞의 책, 『松尾芭蕉』, p.77.

먼 客地에서 늙어 버리는 한이 있어도 귀로만 듣고 아직 보지 못한 곳, 만일 살아서 돌아온다면..

물론 芭蕉의 自然觀에 있어서 이와 같은 特性을 否定할 수는 없으나 芭蕉 俳句의 對象으로서의 自然은 單純한 美觀을 주는 外形의 自然만은 아니었다. 對象化되는 物理的 空間으로서의 自然이나 存在者로서의 花鳥風月은 經驗할 수 있는 物的 存在에 不過하며, 결코 그 自体가 詩歌의 理想的인 素材나 對象이 될 수는 없다. 自然은 스스로의 運行秩序를 갖고 있는 理由로 해서 詩歌의 對象이 될 수 있으며, 거기에 自然의 意味가 存在하는 것이다.

芭蕉는 自然을 固定된 事物로 보지 않는다. 自然은 動的인 것이고 그 움직임은 奧妙한 原理를 갖는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原理를 芭蕉는 「造化」라는 用語로 表現하고 있다. 造化는 自然 自体의 움직임이고, 이 움직임은 한결 같으며 秩序整然하다. 造化는 自然에 內在해 있어야만 價值가 있으며 이런 前提에서만 自然은 藝術의 對象일 수가 있다. 그리하여 感覺的 美景이라는 것도 造化의 展開課程이 顯著하게 外觀으로 나타난 것을 뜻한다고도 할 수 있다.

芭蕉는 『笈の小文』 序文에서 「西行」의 和歌나 「宗祇」의 連歌나 「雪舟」의 그림이나 「利休」의 茶道나 自己의 風雅나 이들을 貫道하는 것은 同一한 것이며, 그것은 造化를 따르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主張하고 있다.

造化に隨ひて四時を友とす。見る處、花にあらずとふ事なし、思ふ所月にあらずといふ事なし。…造化に隨ひ造化に歸れとなり。¹⁴⁾

芭蕉는 自然을 自体의 秩序를 갖는 造化로 理解하고, 人間의 主觀(私心)을 排除하였을 때 自然은 스스로의 本相으로 나타나며, 이때 物我一如의 境地가 열리는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自然(物)의 本性和 그 움직임을 平平淡淡하게 言語로 滯留시키는 것이 俳諧의 理想인 것이다.

勿論, 芭蕉도 論理的 体系的으로 이런 思惟課程을 展開시킨 것은 아니고 오직 詩的 觀照에서 얻은 것이라 하겠으나, 自然에 관한 芭蕉의 本質의 思惟의 흔적은 芭蕉 및 그의 門下의 記錄의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어, 芭蕉야말로 日本 傳統詩人 中 前無後無하게 自然의 獨自의 秩序를 哲學的으로 吟味한 사람이라 하겠다.

2. 漂泊과 歌枕

傳統詩歌는 주로 그 時代의 政治·經濟·文化의 中心地域에서 創作되기 때문에 그 地

14) 위의 책, pp.45~46.

造化를 따라 각 철을 벗으로 한다. 보는 것 모두 꽃이요, 생각하는 것 모두 달이 된다. …造化를 따라造化로 되돌아가라는 것이다.

域의 風土에 影響을 받기 쉽다. 그러나 각 時代別로 一部の 詩歌는 地方에 있어서도 制作되었다는 事實도 看過할 수 없다. 記紀歌謠는 勿論이고, 『万葉集』에 있어 東歌, 『古今和歌集』 20卷의 大歌所御歌 속의 東歌, 『伊勢物語』에 있어 동쪽으로 가는 여러 段 또한 『更級日記』 앞 부분의 關東地方에서 首都로 上京할 때까지의 部分 等, 大和時代에서 奈良·平安時代에 걸쳐서 여러 地方에서 불리졌던 和歌가 中央에서 收集되어 책에 실렸으며, 首都에서 뜻을 펼 수 있었던 者나 혹은 上代에서 中古時代에 걸쳐 地方官廳과 中央官廳 사이에 官吏들의 交流가 이루어짐에 따라 知識人들에 의해 地方의 風物이 創作의 對象 속에 包含되어 日本詩歌 속에는 中央과 地方의 風土的 要素가 섞여져 하나의 性格을 이루는데 寄與하였다. 그 中 가장 代表的인 例가 歌枕이다.

1) 日本 傳統詩歌와 歌枕

日本傳統詩歌에 있어 山川, 湖水, 바다 등이 文藝的으로 特殊한 位置에 서게 된 主要原因은 「歌枕」의 素材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富士山, 吉野山, 小倉山, 隅田川, 飛鳥川, 大井川, 琵琶湖, 伊勢地方의 海岸 등이 잘 알려져 있는 것은 그곳이 和歌 속에 頻頻하게 登場하기 때문이며, 일단 「歌枕」로 노래되면, 다시 그곳이 각 時代에 있어 詩歌의 대상이 된다는 순환현상이 나타나서, 그 地名이 中央이든 僻地든 區分 없이 詩歌에 取扱되는 地方으로 固定化되어진다. 그러나 「歌枕」로 固定化되기 위해서는 自然히 몇 가지 前提되어야 할 條件이 있다.

첫째가 地理的 位置이다. 「歌枕」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地理的 位置는 사람들의 往來가 頻頻한 首都附近이다. 그러나 首都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地點이 作者의 居住地라든가, 旅行의 目的地라든가, 目的地와 首都를 잇는 通過地點에 있는 場所라면 「歌枕」로서 손색이 없다.

예를 들면 大和三山을 비롯하여 大和, 奈良 全域과 平安京를 中心으로 한 周圍의 山川, 山城, 河內, 和泉, 攝津 等 畿內地方의 山川과 湖水, 海岸은 쉽게 「歌枕」가 될 수 있는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 또 中央 首都圈과 地方都市를 잇는 行路 中, 東海道에서 奥羽地方으로 이어져 있는 길과, 大宰府와 畿內地方 사이의 瀬戶內海와 山陽道, 그리고 西海道의 北部地方, 首都에서 越中地方까지의 北陸道, 또 石見地方까지의 山陰道에 地方官廳에 赴任하는 知識人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山川과 바다 등은 훌륭한 「歌枕」가 되었다.

둘째는 山川, 湖水 等の 有名한 경치와 信仰이나 傳說的인 背景 등이 바탕이 되어 特別히 詩歌에 登場하는 地名이 있다. 즉 富士山, 吉野山, 小倉山, 大井川, 鹽釜, 宮城野 等은 경치가 뛰어났기에 歌枕로 되었다. 三輪山, 三室山, 穴師山, 手向山, 稻荷山, 男山, 吉備의 中山, 賀茂川, 那智瀧 등은 信仰의 對象으로서 和歌에 자주 登場하게 되었다. 또 大國主命와 小彦名命가 만들었다고 전해오는 妹背山, 浦島傳說과 關係가 있는 與謝의 바다, 役의 小角가 一言主神에 명령하여 吉野山에 하루 밤사이에 다리를 걸게 하였다는 葛城山,

葛城王이 奥羽地方으로 派遣되었을 때, 采女가 노래에 흥을 돋우었다고 하는 安積山,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이 常識化 되어버린 飛鳥川 등의 「歌枕」은 그 背後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기에 「歌枕」가 될 수 있었다.

셋째는 그 地名이 掛詞¹⁵⁾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逢坂山(相逢), 龍田山(立), 鹿背山(貸), 音羽山(音), 白山(知), かへる山(歸), 信夫山(忍), 鏡山(映影), 宇津山(現世) 등이다. 이러한 要因은 中古時代 以後 和歌의 修辭法에 掛詞를 利用하였기 때문에 發生한 것으로, 地名과 和歌의 内容과는 그다지 關係가 없다.

2) 芭蕉의 漂泊과 歌枕

芭蕉의 俳句는 古典과 傳統을 重視하였다. 따라서 古人의 詩歌에 대한 깊은 理解와 함께 그들이 踏襲했던 歌枕·名所·旧跡 등을 直接 찾아서 漂泊하였다. 이러한 芭蕉의 精神은 歷史的 事實에 대단한 心血을 쏟게 되는 要因이 되었으며, 芭蕉의 詩世界는 故事的 風物에 關聯이 많다는 意味가 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堀信夫氏는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芭蕉의 歌枕·名所に 關係のある 發句의 數는 250 前後에 達し、その 芭蕉全發句에 對して 占める 割合は、實に 四分の一을 越えている。」¹⁶⁾

俳句가 歌枕와 關聯이 있다는 것은 歌枕를 探訪하였을 때, 그것에 얽힌 內容과 傳說에 의한 外的刺戟에 自身의 詩想을 얻어낸 것을 暗示하는 것이다.

芭蕉가 여러 차례 漂泊을 하는 동안에 많은 歌枕 等 歷史的 遺跡을 찾은 까닭에 純粹한 自然의 描寫보다도 人事에 관한 事項이 增加되는 傾向을 보인다.

芭蕉의 5大 漂泊에서 歌枕과 關聯이 있는 歌枕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⁷⁾

15) 하나의 말에 두 개 이상의 意味가 담겨있는 修辭法이다. 同音異意를 利用하여 한 單語에 두 개 이상의 意味를 부여하며, 文學的 技法으로 日本 詩歌에서 자주 利用하는 테크닉이다

16) 堀信夫(1977) 『芭蕉Ⅱ』, 有精堂 p.141.

芭蕉의 歌枕·名所に 關係가 있는 發句의 數는 250 首 前後에 達하고、芭蕉 全發句에 대한 비율은 실제로 1/4이 넘는다.

17) 松尾靖秋, 『總合芭蕉事典』, 雄山閣 1982, pp.624~648.

(1) 『野ざらし紀行』

歌枕名	歌枕의 位置
相根の關	神奈川縣 足柄下郡 箱根町の 동쪽에 있는 關所.
富士	靜岡縣·山梨縣 兩縣에 걸쳐있는 山.
富士川	靜岡縣·山梨縣 兩縣의 中央으로 흐르는 江.
小夜の中山	靜岡縣 掛川市 日坂附近에 있는 高개.
大和	近畿地方에 位置한 一國으로 奈良縣을 말함.
二上山	奈良縣 北葛城郡 當麻町 當麻寺의 뒷산.
吉野	奈良縣 吉野郡 吉野町. 吉野山은 예로부터 梅花의 名所.
近江路	近畿地方에 位置한 一國으로 滋賀縣을 말함.
不破	岐阜縣 不破郡 關ヶ原町에 있는 關.
武藏野	關東平野 一部 혹은 西南部.
奈良	大和盆地의 東北을 가리키며, 옛 平城京을 말함.
鳴瀧	京都市의 西北部에 位置한 右京區의 景勝地.
伏見	京都市 南部를 말함.
大津	滋賀縣 大津市.
辛崎	滋賀縣 大津市 唐崎로서 琵琶湖의 西岸을 말함.
甲斐	山梨縣 甲州를 말함.

(2) 『鹿島紀行』

鹿島	茨城縣 鹿嶋市.
筑波山	茨城縣 中央에 솟아있는 山.
利根川	關東平野를 縱斷하는 江.

(3) 『笈の小文』

鳴海	愛知縣 名古屋市 綠區 鳴海町.
星崎	愛知縣 名古屋市 南區 星崎町.
伊良古崎	愛知縣 渥美半島의 서쪽끝에 位置한 岬.
伊勢	近畿地方에 位置한 一國으로 三重縣을 말함.
菩提山	奈良縣 奈良市 菩提山町 菩提山.
初瀨	奈良縣 櫻井市 初瀨町.
葛城山	大阪府와 奈良縣 境界에 있는 山.
三輪	奈良縣 櫻井市 三輪町.
布留	奈良縣 北東部에 位置한 布留.
布引の瀧	兵庫縣 神戸市 布引町에 있는 폭포.
高野	和歌山縣 伊都郡 高野町
和歌の浦	和歌山縣 和歌山市 南西部에 있는 해변.
須磨	兵庫縣 神戸市 須磨町
明石	兵庫縣 明石市
淡路島	瀨戶內海 東部에 位置한 섬.

(4) 『更科紀行』

更科の里	長野縣 更埴市·長野市 篠の井埴科郡 戸倉町附近.
姨捨山	長野縣 長野市 篠の井 鹽崎에 있는 小長谷山.
木曾路	鹽尻에서 木曾 馬籠까지를 말함.
棧はし	木曾街道 中 上松町와 木曾 福島町사이에 있는 棧道.
あはの鳴戸	鳴門海峽을 말함.
淺間	長野縣과 群馬縣 사이에 있는 山.

(5) 『奥の細道』

室の八島	栃木縣 栃木市 國府町에 있는 大神神社.
黑髮山	栃木縣 日光市 日光山の 主峰男體山.
那須野	栃木縣 那須郡 一帶.
白川の關	福島縣 白河市에 있는 關.
阿武隈川	福島縣에서 宮城縣을 거쳐 太平洋으로 흘러 들어가는 江.
會津根	福島縣 北部의 磐梯山.
淺香山	福島縣 安積郡 日和田町 북쪽에 있는 丘陵.
あさかの沼	福島縣 安積郡 日和田町
黑塚	阿武隈川 부근에 있는 岩屋.
しのぶもち摺	福島縣 福島市 山口, 文字摺觀音堂 境内에 있는 바위.
實方の塚	宮城縣 名取町에 있는 實方の 墓.
武隈の松	宮城縣 岩沼町 竹駒神社 가까이에 있는 소나무.
名取川	宮城縣 仙台市の 남쪽을 흐르는 江.
宮城野	宮城縣 仙台市 동쪽에 있는 들관. 싸리의 名所.
玉田よこ野	宮城縣 仙台市 東北 郊外.
つつじが岡	宮城縣 仙台市 동쪽, 宮城野 서쪽에 位置.
木の下	宮城縣 仙台市 동쪽, 宮城野 남쪽에 位置. 藥師堂 一帶.
十苜の菅	宮城縣 仙台와 鹽釜 사이.
壺碑	宮城縣 多賀城市 市川에 있는 碑.
野田の玉川	宮城縣 多賀城市 多賀城址의 동쪽을 흐르는 江.
沖の石	宮城縣 多賀城市 多賀城町에 있는 연못 속에 있는 바위.
末の松山	宮城縣 多賀城市 多賀城町 八幡에 있는 소나무.
塩釜の浦	宮城縣 塩釜市の 海岸.
籬が島	宮城縣 塩釜市の 海岸에 있는 작은 섬.
松島	宮城縣 宮城郡 松島町
雄島	宮城縣 宮城郡 松島灣의 작은 섬.
松が浦島	宮城縣 多賀城市 多賀城町의 東北 海岸의 작은 섬.
あねはの松	宮城縣 栗原郡 金成町에 있던 소나무.
緒だえの橋	宮城縣 古川市에 있던 다리.
金花山	牧鹿半島의 東南쪽에 있는 섬.
袖のわたり	宮城縣 石卷市 北上川을 따라 있었던 歌枕.
尾ぶちの牧	宮城縣 石卷市 동쪽 丘陵.
まの菅はら	宮城縣 石卷市 眞野 東北에 있는 들관.
衣川	高館의 북쪽에서 北上川으로 흘러들어가는 江.
衣が關	中尊寺 表參道 入口 付近의 古關.
岩手の里	宮城縣 玉造郡 岩手山町.
小黒崎	岩出山町의 西北, 荒雄川の 河畔.
みづの小島	荒雄川の 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

最上川	吾妻山에서 發源하여 日本海로 흘러들어감.
板敷山	新庄의 最上川 下流 南岸에 솟아있는 山.
白糸의 瀧	最上川 草薙 附近에서 右岸으로 걸쳐진 폭포.
湯殿山	山形縣 中部에 있는 山.
象潟	秋田縣 由利郡 象潟町.
むやむ야의 關	秋田縣 由利郡 象潟町 關村의 關.
ねぶの花	자귀나무. 잡지는 나무란 意味.
那古	富山縣 伏木港 東南의 바다.
担籠	富山縣 氷見市の 西南에 있는 藤나무의 名所.
有磯海	伏木港 西北 一帶의 바다.
卯の花山	富山縣 小矢部市에 있는 山.
白根	石川縣과 岐阜縣의 境界에 있는 白山.
那智	和歌山縣 東牟婁郡에 있는 山. 那智神社와 那智폭포가 있음.
石山	滋賀縣 大津市에 있는 石山寺.
敦賀	福井縣 敦賀市.
淺水の橋	福井縣 淺水川에 있는 다리.
玉江의 芦	福井縣 福井市の 남쪽, 花堂村의 玉江 附近.
鶯의 關	福井縣의 湯尾와 鯖波 사이의 關.
かへる山	福井縣의 今庄에서 「木の目峠」의 산길.
越路	北陸道の 古稱.
けひ	敦賀의 古稱.
種の浜	敦賀灣 北西部의 海岸.
二見	三重縣 度會郡 二見町

以上이 芭蕉가 探訪한 歌枕이며, 結局 芭蕉의 歌枕 探訪은 古人들의 詩歌 內容과 詩情의 繼承을 意味하고 있다.

芭蕉는 이미 많은 歌枕에 대해 듣고 읽고 하여, 어느 정도 歌枕의 來歷·伝説 等に 대한 常識은 있었지만, 直接 經驗하지 않고서는 文藝的인 깊이를 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芭蕉가 恒常 古人들의 詩歌에서 詩魂을 찾으려는, 尙古主義的 精神이 歌枕로서 充當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IV. 芭蕉의 漂泊에 나타난 杜甫의 影響

杜甫는 긴 漂泊生活에서 각 地方의 風景·風物을 접하면서 詩의 素材로 利用하였다. 李白과 杜甫는 同時代의 人物이지만, 仁枝忠는 芭蕉에 대해 「李白의 詩作的な態度より 杜甫의 流浪と詩作風を選んだ。」¹⁸⁾ 라고 主張하고 있다. 杜甫에게 있어 漂泊은 그의 生活이었고, 詩歌는 杜甫에게 있어서 훌륭한 親舊의 役割을 하였다. 芭蕉의 境遇도 漂泊은 生活의

18) 仁枝忠(1961) 『芭蕉と中國文學』, 明善堂書店, p.133.

李白의 詩作的인 態度보다 杜甫의 流浪과 詩作風을 택하였다.

安息處가 되었고, 아울러 俳句가 芭蕉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芭蕉가 즐겨 쓰던 風雅·風流 等の 語彙는 杜甫의 漢詩文 中에 頻煩히 登場한다. 이러한 점을 통해 芭蕉의 漂泊 世界를 살펴보면 杜甫의 影響이 지대하였음을 感知할 수 있다.

1. 漂泊과 環境的 要因

杜甫는 憂國愛民의 詩人으로 불려진다. 확실히 杜甫의 詩는 「憂國慨世」를 읊은 詩가 많고, 政治的인 性格이 강한 것이 特徵이다. 이것은 詩人의 人生觀, 自然觀 및 살아온 社會의 狀況, 家庭環境 등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杜甫가 태어난 것은 唐의 玄宗이 卽位한 해(712年)이며, 唐王朝의 全盛時代였다. 그런데 746~755년까지 玄宗은 政治에 熱意를 잃고, 朝廷에서 權力다툼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755年(天寶14) 節度使 安祿山이 反亂을 일으키고, 반란군에 의해 京城이 陷落당하고, 玄宗은 蜀으로 避身하고 肅宗이 卽位하였다. 9年에 걸친 安祿山의 亂으로 온 中國은 荒廢化되고, 民衆들도 極도로 困難한 生活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時代的 環境에 의해 杜甫도 敵中에 빠지고, 家族이 빨빨히 흩어지는 등, 安祿山의 亂을 몸소 體驗하였다. 그리고 이 戰亂이 鎮靜된 後에도 中國 內에서는 戰亂이 繼續되었고, 杜甫도 家族을 거느리고 戰亂 속에서 生을 마감하는 그 瞬間까지 漂泊生活을 繼續하였다.¹⁹⁾ 戰亂 속에서의 漂泊은, 杜甫에게 自然 道理에 따라 安定된 世界를 구현하려는 信念을 더욱 강하게 하였다. 杜詩는 唐王朝의 繁盛에서 衰亡의 길을 걷는 歷史的 變換期에 社會變貌와 歷史의 本質을 反影하고, 強烈한 現實主義의 精神을 띄고 있다. 儒敎, 佛敎, 道敎의 思想을 나타낸 詩도 있지만, 대부분의 詩는 秩序整然하고, 편안한 自然의 世界를 拒逆하는 人間의 世界와 항상 對比적으로 描寫하면서, 森羅萬象의 自然과 人生의 哲理를 追求하였다. 또한 戰亂을 있는 그대로 描寫하고, 憂國慨世를 表現하였기 때문에 杜甫를 憂國愛民의 詩人, 社會詩人이라고 일컫는다.

芭蕉는 杜甫와 反對로 藝術至上主義의 길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芭蕉가 산 江戶時代는 外國의 侵略도 없었고, 內亂도 없었다. 이 時期는 江戶幕府의 安定기로서, 社會가 전 반적으로 安定되고, 町人의 대두와 함께 經濟가 發達한 國強富民의 時期였다. 芭蕉는 이런 時代的 環境 덕분에 俳句 創作活動에 專念할 수 있었다. 이러한 時代的 背景과 함께 日本의 傳統的인 文藝觀의 影響도 컸다고 할 수 있다. 日本의 傳統的인 文藝觀은 中國과는 달리 純粹한 것을 價値의 基準으로 하였다. 즉 政治問題에 관해서도 回避하는 일 없이 關與해야 한다는 中國의 傳統的 文藝觀인데 비해, 日本에서는 文藝에 政治가 얽히면 멋이 없어진다는 생각하였다.²⁰⁾ 日本 傳統 文藝觀을 繼承한 芭蕉는 生涯를 통해, 文藝를

19) 朴忠祿(1985) 『杜甫와 그의 詩』, 룡녕인민출판사, pp.25~51.

20) 曹元春(2000) 『杜甫と芭蕉』, 白帝社 p.37.

위하고, 優秀한 俳句의 發展을 위하여 努力하였다.

1680年 37歲인 芭蕉는 職業的인 俳人으로서 世俗的 名聲과 蓄財는 충분히 保障되었으나, 深川의 芭蕉庵으로 隱居하고, 다시 通俗的인 宗匠生活로서는 참 藝術을 얻을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어, 다시 大自然 속으로 漂泊을 繼續하였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俳句를 위해 살기를 바란 것에서 緣由한다.

芭蕉는 『笈の小文』에서 다음과 같이 主張하고 있다.

西行の和歌における、宗祇の連歌における、雪舟の繪における、利休の茶における、その貫道するものは一つなり。しかも風雅におけるもの、造化にしたがひて四時を友とす。見るところ花にあらずといふことなし。思ふところ月にあらずといふことなし。像、花にあらざる時は夷狄にひとし。心、花にあらざる時は鳥獸に類す。夷狄を出で、鳥獸を離れて、造化にしたがひ、造化にかへれとなり。21)

詩歌의 最高 境地에 달하는 條件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俳句는 天地自然에 따라, 四季節 變化를 벗으로 하는 것이다. 보는 것 모두가 꽃이고, 생각하는 것 모두가 달이 아닌 것이 없다. 事物을 꽃으로 보지 못하면 野蠻人과 같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에 달처럼 優雅함이 없으면 鳥獸와 같다. 따라서 野蠻人이나 鳥獸같은 境地에서 벗어나 天地自然에 順應하고, 天地自然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며, 一生 여기에 執着하였다 또한 죽기 전에 남긴 「旅に病で夢は枯野をかけ廻る」²²⁾의 句는 風雅에 대한 강한 妄執의 끊임 없음을 恨歎하였다.

그런데 日本의 傳統的인 純粹한 文藝를 追求한 芭蕉가 어찌하여 憂國愛民의 詩人으로 불리는 杜甫에 沒入하고, 政治的인 色彩가 강한 杜詩에 感動하였느냐의 점이다. 그것은 杜詩가 당시 社會現實을 描寫하는데 머물지 않고, 個人이나 國家 問題를 훨씬 超越하여 宇宙와 人生의 問題를 探索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杜詩의 本質的인 生命은 事物의 理致를 探究하는 것이며, 杜詩가 時間과 空間을 超越하여 世上 사람들에게 親近感을 주는 理由도 여기에 있다.

芭蕉는 杜詩의 發想, 表現技法에 魅了되었을 뿐만 아니라, 自然스러움과 平凡한 人間의 日常的인 生活을 描寫하면서도 自然의 理致와 人生의 哲理를 探求한 것에 感動받았기 때

21) 앞의 책, 『松尾芭蕉集』, pp.45~46.

西行의 和歌나, 宗祇의 連歌나, 雪舟의 그림이나, 利休의 茶道나, 이들의 藝道는 동일한 것이다. 그런데 俳諧의 風雅라는 것은 造化에 순응하고, 사계절 變化를 벗삼아 그것을 시로 표현해 간다. 보는 것 모두가 꽃이고 생각하는 것 모두가 달인 것이다. 그 아름다움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야만인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야만인이나 새, 짐승의 境地에서 벗어나 自然의 造化에 順應하고, 그 造化의 世界로 돌아가야 한다.

22) 井本農一 外3人(1999) 『松尾芭蕉集1』, 小學館, p.564.

旅行에서 病이드니 꿈은 마른 들판을 헤메둔다.

문이라고 할 수 있다. 芭蕉 또한 杜甫처럼 自然의 理致와 人生의 哲理를 追求한 詩人이다. 특히 芭蕉庵에 隱居生活을 한 以後, 漂泊하고 漂泊을 통해서 人生의 問題에 本質적으로 接近하려는 傾向이 나타난다.

2. 自然을 향한 接近方式으로서의 漂泊

芭蕉와 杜甫는 平生 自然 속을 漂泊하는 삶을 살았다. 이 같은 삶에 비추어 볼 때, 芭蕉와 杜甫가 自然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認識했는가 하는 점은 自明해진다. 自然은 그들에게 있어 漂泊적인 삶의 舞台이고, 나아가서는 삶 그 자체였다. 그들은 自然 속을 떠돌아다니면서 눈에 닿는 모든 것을 詩로 읊었고, 自然으로부터 發見한 아름다움, 삶의 새로운 面貌를 詩歌로 남겼다.

日月は百代の過客にして、行かふ年も又旅人也。舟の上に生涯をうかべ、馬の口とらへて老をむかふる者は、日々旅にして旅を栖とす。…(中略)…予もいつれの年よりか、片雲の風にさそはれて、漂泊の思ひやます。23)

위의 『奥の細道』 序文에서도 알 수 있듯이, 芭蕉에게는 漂泊 자체가 삶이었으며, 그 배경이 되는 自然은 바로 삶의 舞台였던 것이다.

造化の天工、いつれの人か筆をふるひ、詞を盡さむ。24)

涼しさを我宿にしてねまる也。25)

둘 다 漂泊 中 느낀 바를 읊은 것으로 俳句는 淸風亭에서 머물 때 지은 것이며, 뒤 文章은 自然의 아름다운 風光에 대한 感歎을 表現한 것이다. 그의 紀行文과 수많은 俳句 作品들은 바로 이 같은 漂泊의 産物인 것이다.

自然이 漂泊으로 점철된 삶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에서 芭蕉와 杜甫는 一致한다. 그러

23) 앞의 책, 松尾芭蕉集2, p.75.

日月은 百代에 걸쳐 旅行을 계속해 온 것이고, 또 오고가는 한 해 한해가 旅客이다. 배 위에 몸을 띄우며 一生을 보내거나, 말고삐를 잡고 생애를 보낸 뒤 老年을 맞는 사람은 하루 하루가 旅行이며, 旅行 그 자체를 일상의 거처로 하고 있다.…(중략)…나도 언젠가부터 한 조각구름을 날려 보내는 바람에 이끌려 漂泊의 衝動이 멈추지 않는다.

24) 위의 책, p.96.

조물주가 빚어놓은 놀라운 솜씨를 어느 누가 붓으로 그려내고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25) 위의 책, p.102.

서늘한 바람을 내 집 삼아서 지내볼거나

나 自然 속을 떠돌아다니게 된 契機는 다르다. 杜甫의 경우 戰亂이나 經濟的 貧困 등 他意的·外部的 要因이 크게 作用하였지만, 芭蕉의 境遇는 여러 글에서 엿볼 수 있는 性格的으로 放浪癖이 있었던 듯하다. 그리고 放浪癖을 부추긴 要素 中の 하나가 바로 이리저리 떠돌며 살았던 杜甫의 삶이었다. 그는 모든 면에서 杜甫를 自身の 삶의 모델로 삼았기에, 杜甫의 삶의 패턴으로부터 自身の 끊임없는 漂泊에 意味를 賦與할 수 있는 적절한 動機를 發見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芭蕉가 漂泊을 渴望했던 까닭은 「創作 資源의 確保」라는 側面을 생각해 볼 수 있다. 芭蕉에게 있어 漂泊은 創作活動의 源泉이며, 漂泊 앞에 펼쳐진 自然은 創作의 素材였던 것이다. 새로운 素材를 찾아 詩스타일의 變化를 꾀하고, 새로운 詩 世界를 開拓하는 데 있어 自然과의 만남은 最上의 機會를 提供하였던 것이다.

師のいはく、「乾坤の変は風雅のたね也」²⁶⁾

즉, 芭蕉에게 있어 天地自然 속에서 變化하는 모든 것이 俳句의 素材이자 對象이며, 創作 欲求를 불러일으키는 刺戟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自然認識 態度는 杜甫에게서는 볼 수 없는 芭蕉 高유의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물론 杜甫도 自然 속에서 詩的 靈感과 創作의 契機를 얻었지만, 創作 活動과 새로운 詩 世界의 開拓을 위해 自然 속을 떠돌아 다닌 것은 아니었다.

風雅もよしや是までにして、口をとちむとすれば、風情胸中をさそひて、物のちらめくや風雅の魔心なるべし。なを放下して栖を去、腰にただ百錢をたくはえて、拄杖一鉢に命を結ぶ。なし得たり、風情終に菰をかぶらんとは。²⁷⁾

이 文章은, 自然 속을 떠돌고자 하는 그의 放浪癖 漂泊하고자 하는 衝動이 詩創作과 不可分の 깊은 關聯이 있음을 端的으로 示唆한다. 이렇게 自然 속을 떠돌면서 杜甫를 비롯한 옛 詩人들의 詩句와 비슷한 風景, 혹은 『源氏物語』나 和歌에 記錄된 内容이나 場所와 마주치면 다음과 같은 俳句를 읊기도 하였던 것이다.

淡路島手にとるやうに見えて、すま・あかしの海右左にわかる。吳楚東南の詠もかかる所にや。²⁸⁾

26) 木藤才藏 校注(1983) 「三冊子 赤雙紙」 『連歌論集 俳論集』 所收, 岩波書店, p.400.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天地 自然의 變化는 모두가 俳句의 素材이다” 라고 하셨다

27) 尾形尙(2002) 『芭蕉ハンドブック』, 三省堂, p.151.

俳句를 짓는 일도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입술을 깨물지만, 詩情이 가슴에 용솟음쳐 뭐가 알 수 없는 것이 눈앞에 어른거리니 이것이 틀림없이 風雅의 귀신일 것이다. 이 魔心에 홀려 다시 모든 것을 떨치고 거처를 나서, 허리에는 다만 100전 둘러차고 지팡이 한 개로 목숨을 부지하려고 한다. 俳句 한 길에 생을 다 보냈는데 결국 거적을 쓰는 신세가 될 줄이야.

이렇게 볼 때, 自然은 단순히 詩의 素材를 提供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敬慕하는 對象과 遭遇하게 하는 場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芭蕉에게 있어 自然은 漂泊의인 삶의 舞台가 된 同時에, 人生과 俳句에 意味를 賦與해 준 契機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杜甫의 삶을 본받고자 했던 芭蕉의 意識的·無意識的 欲求가 개재되어 있음도看過할 수 없다.

3. 漂泊에 대한 態度

杜甫와 芭蕉의 漂泊에 대한 態度에는 根本的인 差異가 있다. 杜甫의 境遇는 어쩔 수 없는 狀況에서 漂泊을 始作한 것에 비하여, 芭蕉는 積極的으로 스스로 漂泊에 나섰던 것이다. 이 差異에 의해서 兩者의 漂泊에 대한 態度도 쉽게 想像할 수 있다.

杜甫의 後半生涯의 漂泊은 風流를 위함도, 人生을 즐기기 위함도 아니었다. 杜甫는 원래부터 漂泊을 좋아하지 않았다. 「贈蜀僧閻丘師兄」²⁹⁾에서는

漂然薄遊倦 자신은 표박생활로 노는 것에 싫증나 있기 때문에
始與道侶敦 비로소 도덕적인 친구와의 교제를 돈독히 하게 되었다

이라고 吐露하면서 自身이 他鄉에서의 漂泊생활에 싫증나 있는 心境을 表出하고 있다.

또 「自閬州領妻子欲赴蜀山行三首」其二³⁰⁾에서는

何日干戈盡 언제쯤이면 병란이 없어질 것인가
飄飄愧老妻 헤메이는 것은 老妻에 대한 부끄러움

라고 吐露하고, 이렇게 즉 漂泊生活을 繼續하는 것은 아내에게 미안하다. 戰亂이 빨리 끝나 定着해서 生活하고 싶다고 하는 氣分을 나타내고 있다. 「旅夜書懷」³¹⁾에서는 다음과 같이 吐露하고 있다.

細草微風岸 가느다란 풀, 바람이 이는 언덕
危檣獨夜舟 높은 돛대, 외로운 밤배

28) 앞의 책, 『松尾芭蕉集2』, p.63.

淡路島가 손에 잡힐 듯 보이고, 須磨、明石의 바다가 좌우로 나뉘어 있다 「吳楚東南坼」이라고 杜甫가 읊었던 풍경도 이런 곳이었을까?

29) 앞의 책, 『杜甫全詩集 第2卷, 杜少陵詩集 第9卷』, p.322.

30) 앞의 책, 『杜甫全詩集 第3卷, 杜少陵詩集 第13卷』, p.48.

31) 앞의 책, 『杜甫全詩集 第3卷, 杜少陵詩集 第4卷』, p.253.

星垂平野闊	너른 들에 별은 가득 드리우고
月湧大江流	흐르는 큰 강에 달은 솟구쳐 오른다.
名豈文章著	이름이 어찌 문장으로 드러나리?
官應老病休	관직은 늙고 병들었으니 쉬어야하리
飄飄何所似	홀홀한 이 몸이 무엇같은가
天地一沙鷗	천지간 한 마리 갈매기

自身の漂泊은 天地間에 있어서 한 마리의 갈매기 같다고 한 것이다.³²⁾ 漂泊者의 孤獨하고 寂寞한 마음을 잘 表現하고 있다.

「別贊上人」³³⁾

我生苦飄蕩 내 생활은 漂泊에 괴롭지만
何時有終極 언젠가 終極이 있겠지

「別董穎」³⁴⁾

飄蕩兵甲際 병란으로 표류하고 있는 이 몸이
幾時懷抱寬 언제쯤이면 悠悠自適하게 될까

「野望」³⁵⁾

西山白雪三城戍 멀리 흰 눈이 내린 西山의 三城 軍營을 바라보고
南浦清江萬里橋 남쪽 물가 錦江에 걸쳐진 萬里橋를 바라본다.
海內風塵諸弟隔 지금 세상에는 난리 중이라 여러 동생들은 떨어져 있고
天涯涕淚一身遙 하늘 한쪽 끝에서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외톨이 신세이다.
唯將遲暮供多病 더욱이 세월은 흘러 자신도 모르게 늙어가 병만 잦아지는데
未有涓埃答聖朝 아직도 성은에 티끌만큼도 보답하지 못하니 슬프다.
跨馬出郊時極目 말을 타고 교외에 나가 사방을 둘러보지만
不堪人事日蕭條 세상일은 쓸쓸해져 가니 슬프고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이 3首의 詩에서는 戰亂 때문에 괴로운 漂泊 生活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故鄉으로 돌아가 兄弟와 함께 安定된 生活을 하려고 바라는 것을 쓰고 있다. 杜甫는 漂泊을 좋아하지 않았고, 더구나 他鄉에서 客死하는 것도 싫어했던 것이다.

「赤谷」³⁶⁾에서는

32) 小野忍 外2人(1983) 『漂泊의 詩人』, 平凡社 p.182.

33) 앞의 책, 『杜甫全詩集 第2卷, 杜少陵詩集 第8卷』, p.203.

34) 앞의 책, 『杜甫全詩集 第4卷, 杜少陵詩集 第22卷』, p.629.

35) 위의 책, p.681.

貧病轉零落	가난과 병고에 더욱 영락한 몸
故鄉不可思	고향 찾을 생각도 못하겠노라
常恐死道路	이대로 길바닥에 죽어 쓰러져
永爲高人嗤	덕 높은 사람에게 웃음을 살까 두렵네

라고 漂泊의 苦痛스러움과 죽음을 一體化시켜서 吐露하고 있으며, 또한 「奉送嚴公入朝十韻」³⁷⁾에서는

此生那老蜀 자신의 생애는 어째서 이 촉나라에서 이어지는가
 不死會歸秦 죽지 않고 생명만 있으면 반드시 長安으로 돌아가리

이라고 하고 長安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所望을 披瀝하고 있다.

漂泊하는 것도 他鄉에서 客死하는 것도 싫어하면서 漂泊을 繼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無食問樂土」· 「有求彼樂土」 때문이다.

樂土, 桃源이라고 하는 1100年 以來 사람들의 憧憬의 場所는 몇 번이나 杜詩에 나타난다. 杜甫가 渴望한 樂土나 桃源은 卽, 人間을 包含한 萬物이 自然의 法則에 따라 바르게 運行한다고 하는 便安한 世界이다. 杜甫는 生涯의 後半을 이 樂土, 桃源을 찾아서 漂泊하였다. 그러나 杜甫의 절필인 「風疾舟中伏枕書懷三十六韻 奉呈湖南親友」에서 말한 것처럼 「源花費獨尋」이다. 樂土나 桃源은 이 世上에는 存在하지 않았던 것이다.

以上에서 알 수 있듯이 杜甫의 漂泊은 戰亂을 피해, 食糧을 구하기 위해 행한 것인데 비해 芭蕉의 漂泊은 創作活動이고, 新風 開拓의 思索修練의 장이었다. 杜甫의 漂泊은 거의 計劃에 없는 것이었고, 恒常 괴로움, 閑寂함을 同伴한 것이었다. 芭蕉의 漂泊은 困窮, 飢餓, 孤獨, 寂寞도 同伴하였지만 不平을 자주 말하는 杜甫와 正反對로 芭蕉는 自身이 놓여진 處地에 대해 不滿스럽게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이런 處地를 渴望하였던 것이다.

芭蕉가 漂泊을 渴望했던 것은 漂泊이 風雅의 길과 連結되어 있기 때문이며, 風雅의 길을 걷는 것을 自身의 使命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芭蕉의 「旅に病で夢は枯野をかけ廻る」句는 여기서 아직 먼 쓰쿠시(筑紫) 쪽까지 漂泊을 繼續하려고 크게 希望을 품고 떠난 漂泊 途中에 病 때문에 누운 몸이 되었다. 그러나 누워있는 동안에도 마른 잎이 헤메어든다는 꿈을 꾸었던 것이다. 芭蕉는 風雅 때문에 漂泊하고, 그 風雅를 追求하는 精神이 一句에 넘치고 있다.

앞에서 예를 든 『奥の細道』의 序文³⁸⁾

36) 앞의 책, 『杜甫全詩集 第2卷 杜少陵詩集 第8卷』, p.215~216.

37) 앞의 책, 『杜甫全詩集 第2卷 杜少陵詩集 第1卷』, p.514.

舟の上に生涯を浮かべ、馬の口とらへて老をむかふる者は、日々旅にして旅を栖とす。古人も多く旅に死せるあり。

라는 것은 漂泊에 隨伴되는 危險이나 죽음까지도 생각하면서 漂泊을 한다는 覺悟를 吐露하고 있다. 또 『奥の細道』의 이이즈카 飯塚 條에서는

羈旅邊土の行脚、捨身無常の觀念、道路にしなん是天の命なり³⁸⁾

라고 읊고 있지만, 自身の 몸을 버릴 覺悟로 漂泊을 나선 것이기 때문에 설령 漂泊 途中에 죽는다고 해도 그것이 天命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어진 것을 天命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安堵하는 莊子的인 死生觀을 나타내고 있다.

以上에서 알 수 있듯이 漂泊은 杜甫의 詩, 芭蕉의 俳句 創作에 豊富な 素材를 提供하고, 自然에 接近할 機會를 주었다. 또 두 사람은 많은 名所·旧蹟을 訪問하였다. 두 사람은 여러 가지 立場에서 自然, 人生을 觀察하고, 宇宙의 哲理, 人生의 哲理를 檢討할 수 있다. 萬若, 芭蕉가 点者の 業에 安住하여, 10年間 漂泊旅行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의 두 사람의 優秀한 詩歌는 없었을 것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V. 나오는 말

芭蕉와 杜甫는 漂泊으로 生涯의 後半을 보내고 漂泊 途中 他郷에서 最後를 맞이하는 점에서는 두 詩人の 삶이 매우 닮았다. 그리고 漂泊으로 詩歌를 向上시키고, 수많은 秀歌를 誕生시켰다는 共通點도 있다. 또한 漂泊으로 인한 困難함, 生活의 窮乏함, 孤獨, 寂寞 等에서도 芭蕉와 杜甫는 恰似하다. 그리고 이런 觀點에서 볼 때, 芭蕉와 杜甫의 詩歌는 漂泊과 遊離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密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漂泊的 環境으로 살펴보면, 日本의 傳統的인 文藝觀은 政治에 關與하는 文藝는 멋스러움이 없어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純粹한 文藝를 追求한 芭蕉가 憂國愛民의 詩人으로 불리는 杜甫에 没入하고, 政治的인 色彩가 강한 杜詩에 感動한 점은 杜甫는 思索者인 同時에, 詩歌의 形式을 빌려 自然의 理致와 人生의 哲理를 探求하였기 때문이다.

38) 앞의 책, 『松尾芭蕉集2』. p.75.

배 위에서 一生을 보내는 뱃사공이나, 平生 말 꼬비를 쥐고 老年을 맞이하는 馬夫는 毎日 毎日 旅行이요 旅行이 自身이 사는 곳이 되는 것이다. 風流를 아는 古人도 旅行 中에 죽는 境遇가 많다.

39) 앞의 책, 『松尾芭蕉集2』. p.89.

邊方奥地를 修道하는 마음으로 떠나는 발걸음, 내 몸 던져 諸行無常을 깨닫는 것, 길에서 쓰러져 죽는다면 그것도 天命이다.

杜甫의 詩는 當時 社會現實을 描寫하는데 머물지 않고, 個人이나 國家 問題를 훨씬 超越하여 宇宙와 人生의 問題를 探索하였다. 杜甫 詩의 本質적인 生命은 事物의 理致를 探究하는 것이다.

芭蕉는 漂泊을 통해 自然으로 接近하여 名所·舊蹟·神社佛閣·歌枕 등을 訪問하고, 杜甫와 같은 漂泊古人的 마음에 젖어 깊은 感慨를 自覺하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芭蕉가 憧憬하고 찾은 自然은 造化이고, 漂泊古人的 숨결이 살아 숨쉬는 洗練된 自然이었다. 물론 그것은 漂泊古人的 境地를 模倣한 것이 아니고, 獨自의 俳境을 開拓하는 것을 意味한다. 自然은 單純히 詩의 素材를 提供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敬慕하는 對象과 遭遇하게 하는 場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芭蕉에게 있어 自然은 漂泊의 삶이 舞台가 된 同時에, 人生과 俳句에 意味를 賦與해 준 契機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기 에는 杜甫의 삶을 본받고자 했던 芭蕉의 意識의·無意識의 欲求가 介在되어 있음도 看過할 수 없다.

【參考文獻】

- 辛恩卿(2000. 1) 「杜甫·尹善道·松尾芭蕉에 있어서의 ‘隱의 처세에 관한 비교연구」, 韓國言語文學會.
- 辛恩卿(2000. 8) 「尹善道와 바쇼오(芭蕉)에 끼친 杜甫의 影響에 관한 연구」, 韓國比較文學會.
- 井本農一(1999) 『松尾芭蕉1·2』, 小學館.
- 奧村恆哉(1980) 『古今和歌集』, 新潮社.
- 與謝野晶子(1955) 『源氏物語 上·下』, 河出書房.
- 松尾聰 外 2人(1983) 『枕草子』, 小學館.
- 松尾聰(1978) 『徒然草全釋』, 清水書院
- 堀信夫(1977) 『芭蕉II』, 有精堂
- 仁枝忠(1961) 『芭蕉と中國文學』, 明善堂書店.
- 朴忠祿(1985) 『杜甫와 그의 詩』, 료녕인민출판사.
- 曹元春(2000) 『杜甫と芭蕉』, 白帝社.
- 木藤才藏 校注(1983) 「三冊子 赤雙紙」 『連歌論集 俳論集』 所收, 岩波書店
- 尾形侑(2002) 『芭蕉ハンドブック』, 三省堂
- 鈴木虎雄 註解(1978) 『杜甫全詩集 第1·2·3·4卷』, 日本圖書センター
- 小野忍 外2人(1983) 『漂泊의 詩人』, 平凡社

要 旨

芭蕉には19才の時に俳諧に入り、貞門から談林を終えて俳諧の世界において、ある程度の位置を築いたが、貞門、談林の言語の遊戯に限界を感じ、俳諧の新しい方向を模索するための深川の芭蕉庵での隠遁生活をするようになる。芭蕉の「奥の細道」の根底に流れる「漂泊」という想いに、なんとも言いようのない憧れのようなものを抱いていた。ふわふわと漂うようなその言葉の持つ響きも含めて、あてのない漂泊の暮らしがとても魅力的に思えたからである。人が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は、例えどんなに孤獨な人生と思えても、全く誰ともかかわらず生きていくことは不可能である。何かしらの関わりがどこかにあ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その関わりやしがらみがあるからこそ、漂泊する行為に意味が発生するのだと思う。漂泊していると認識するためには、漂泊という行為を映し出す鏡が必要である。漂泊する自分を寫す鏡である。それは漂泊しない存在である。それが歸るべき家なのかもしれない。ここでいう家とは、物理的な家に限らない。例え本當に家がなくとも、そこが自分の家だと感じる場所、あるいは人、もしかすると精神的存在なのかもしれない。そんな存在があつて初めて漂泊という行為を相對化して見る事ができるのだと思う。

キーワード：芭蕉, 杜甫, 俳諧, 漂泊, 自然, 歌枕

투 고 : 2005. 11. 30

1차 심사 : 2005. 12. 10

2차 심사 : 2005. 12. 31

住 所 : (660-759) 경남 진주시 문산읍 진주국제대학교 관광일어학과

電 話 : 011-568-0384

e-mail : japan815@naver.com